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의미 묻는 현대과학기술

글 | 손화철 _ 부산대학교 박사후과정 whachuls@hotmail.com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혹은 왜 사는가? 인간이 신화의 세계를 벗어나 철학적 사유를 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 물음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굳이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의 의미를 묻게 되는 시점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은 시대와 개인의 성향,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거나 대답을 포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대응 방식 중 하나인데,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삶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일 중독증이나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는 매우 구태연하고도 강박적인 구호들, 그리고 최근 몇 년 새에 갑자기 늘어난 보험 광고들이 이러한 경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현상들이다.

조작과 선택의 대상이 된 생명체

기술철학과 삶의 의미가 무슨 상관이 있는냐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 사실 기술철학은 그 물음 자체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다. 그 대신 기술철학은 더 이상 ‘삶’이 우리가 알던 그 삶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언제 생명이 시작되며, 언제 삶이 마감되는가? 현대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이전에는 문제 삼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묻게 만든다. 수정된지 2주가 되지 않은 배아는 ‘세포덩어리’로 취급받지만 임신 26주 만에 태어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넣어 살릴 수 있다. 최근 한 권투선수의 뇌사 소식이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

했는데, 장기이식을 허용하고도 뇌사 판정을 조금 늦추어주기를 원하는 가족들을 설득하여 판정을 내리고 장기이식을 실행했다. 어차피 사망에 이를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판정이 너무 늦어지면 장기가 손상되어 이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이전에는 인간의 한계 밖에 있었던 생물학적 삶의 시작과 끝이 이제는 결정과 결단의 문제가 되었다.

과학기술로 인해 인간이 아닌 생명을 다루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인공 수정된 가축들일 가능성이 많다. 대부분의 작물들은 이런저런 방식의 유전자 조작을 거쳤거나 화학비료, 비닐하우스 등을 통해 일정하게 통제된 환경에서 자라난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었던 자연환경의 한계들이 극복되면서 생명의 독자성은 점차 사라지고,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 처럼, 여러 생물들도 조작과 선택의 대상이 되었다.

현대기술발전이 생명과 삶의 개념 바꿔

‘왜 사는가?’라는 물음도 쉽지 않은데,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까지 묻게 되었으니 옆친 데 덮친 격이라고나 할까.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만약 그가 가족마저 없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독극물을 주사해 죽게 하는 것은 과연 살해 행위인가? 과연 ‘생명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애당초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살려두려고 개발한 것이 생명연장술일 터인데, 그로 인해 생겨난 수많은 기술적 가능성들은 오히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생명과 삶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는다.

현대기술이 가져온 의미연관 변화의 예로 불임치료 기술을 들

수 있다.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부부의 아픔을 덜기 위해 체외 수정과 같은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기쁨을 누렸지만, 동시에 새 생명의 탄생이 가지는 신비는 사라지고 말았다. 과거의 사회들이 불임부부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던 것은 아기의 탄생을 그만큼 신비한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임의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되면서 이제 아이를 갖는 것은 선택사항이 되었다. 오늘날 불임치료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뇌사판정과 장기이식, 생명연장기술이나 불임치료가 가치 없는 일이라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의학의 발달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었고 불임치료는 많은 가정들에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 주었다. 여기서 강조하려 하는 것은 현대기술이 가지는 거대한 형이상학적, 혹은 존재론적 함의다. 삶의 의미를 물을 때 당연하게 전제했던 살아있음의 정의, 그 정의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래 전부터 물어왔던 여러 가지 철학적 질문들의 맥락이 바뀌고, 그에 따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도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제 '나는 왜 사는가?' 혹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는 과거의 질문에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라는 물음을 더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어느 날 잠을 자면서 생을 마치기 원하지만, 냉정한 현실을 보자면 대개 병에 걸려 한동안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렇다면 삶의 그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은 수명을 연장시켜 주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아하게 사는 것이나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아하게 살고 오래 살수록,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더 절실해질 수 있다. 만약 80세, 90세, 혹은 100세가 되었을 때 큰 수술을 받아야 겨우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뇌사상태에 빠진다면 장기기증을 할 것인가? 식물인간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야 한다면 안락사를 요구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미리 결정을 내리고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는다면, 현대기술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은 본인과 가족들에게 오히려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흔들고, 그에 따라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리 삶에서 지니는 위치와 의미를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수준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공히 관찰된다.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했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 중 일부는 자동차의 작동을 방해하는 망가진 부속과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 문제 자체가 인류 문명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고치면 문제가 해결되고 말지만, 후자의 경우는 새로운 숙제를 우리에게 던진다. 인간복제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생겨나는 물리적인 문제들 때문이 아니라 인간, 인권, 인격, 자연, 시간, 공간, 삶과 죽음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들의 의미 체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을 경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미체계 변화까지 고려한 과학기술 발전 이뤄야

놀라운 것은 과학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서있는 과학자나 공학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과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의 상관성에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어진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집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과학기술이 가지게 된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과학자나 공학자로서의 전문성이 진정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일어나는 의미와 개념체계의 변화까지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일반인들이 과학자와 공학자의 전문성에 의지하는 정도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요청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의미체계, 혹은 의미연관의 변화를 고려한다고 해서 기존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고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일 뿐, 기존의 과학기술 발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복잡하고도 추상적인, 게다가 별반 이득이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것을 사유하는 수고를 해야 한단 말인가? 답은 간단하다. 삶의 의미를 묻는다 해서 오늘 나의 일상이 남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물음을 묻는 자와 묻지 않는 자의 삶은 다르다. 철학적 사유를 마다하지 않는 과학자와 공학자들이 있는 세상은 뭔가 다른 세상이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후 루벤대학에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